

CEO Information

2012. 7. 25. (제861호)

중국의 4大 변화상과 기업의 대응 - 한중 수교 20년을 맞아 -

목차

I.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 韓中관계

II. 10년 후 중국

III. 시사점 및 대응방향

작성 : 권혁재 수석연구원(3780-8043)

hj10.kwon@samsung.com

박변순 연구전문위원

엄정명, 최명해 수석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 요약 》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 韓中관계

1992년 수교 이후 한중 경제관계는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이는 개혁·개방이라는 중국의 거대한 흐름에 한국이 발 빠르게 대응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최근 중국은 선진경제대국으로의 도약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즉, 향후 10년간 민간소비 활성화, 산업구조 고도화, 위안화의 국제화 추진과 금융시장 개방, 국제사회에서의 소프트파워 강화 등을 통해 명실상부한 G2로 거듭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중국의 4大 변화상에 대응하여 기존 한중 경제관계를 전방위적으로 재편하는 한중관계 2.0이 필요하다.

변화 ①: 거대 소비시장, 인구 백만 이상 도시 220개

인구대국 중국은 도시화를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으로 삼고 있다. 2020년까지 매년 서울 인구보다 많은 1,600만 명의 농촌인구가 도시인이 되고, 인구 백만 이상의 대도시가 220개에 달할 것이다. 그리고 도시화 진전과 사회보장제도 확대에 중국인의 소비가 크게 증가하고, 소비유형도 '생계형' 위주에서 '향유형'이 확대되는 쪽으로 변할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對중국 수출구조도 크게 변하여 선진국에 완제품을 수출하기 위한 중간재 중심에서 중국시장 공략을 위한 내수형 중간재 및 최종재로 전환될 전망이다.

변화 ②: 산업강국, 'Made by China'의 부상

앞으로 중국 제조업이 급속히 고도화되어 첨단기술제품과 미래 신산업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강화될 것이다. 중국기업과 외자기업의 관계도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경쟁적 관계로 재편되고, 중국기업에 의한 생산(Made by China)이 크게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가전, 통신기기, 석유화학 등 기존 사업과 신사업 모두 한중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변화 ③: 금융 허브, 위안화의 국제화와 아시아 금융 중심

2020년 중국 위안화는 달러, 유로에 이어 세계 3대 통화로 부상할 전망이다. 동시에 상하이가 중국 금융시장 개방의 아이콘이 되어 뉴욕, 런던과 함께 세계 3대 금융중심지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위안화의 국제화로 한국은 환리스크 완화, 무역비용 절감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며, 중국 금융시장 개방으로 한국의 중국 금융산업 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중국자본의 국내 유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변화 ④: 명실상부한 G2, 국제사회의 규칙제정자(Rule Setter)

중국은 국제사회 규칙제정자로서의 위상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중국의 빠른 경제발전만큼 유엔, G20, IMF, 세계은행 등 국제사회와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소프트파워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이 한국 대외전략의 핵심변수로 부상할 것이므로 美中 간의 '합리적 균형점'을 도출해야 한다.

중국의 대변혁은 한국기업에 위기이자 기회

선진경제대국을 향한 중국의 도전은 적지 않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향후 10년 후 상당한 성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 산업, 금융 부문 등에서의 중국의 대변혁으로 한국은 새로운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맞을 것이다. 이러한 기회를 최대화하고 위기는 최소화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대응 ①: 중국시장을 둘러싼 합종연횡에 대비

거대 중국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대만과 일본 등 경쟁국의 행보가 가속화되고 있다. 대만은 일본의 기술과 중국의 자본을 결합하여 중국시장 진출계획(황금의 삼각형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한국기업은 이에 대응해 현지완결형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국 정부 및 기업과의 파트너십 형성에 더욱 주력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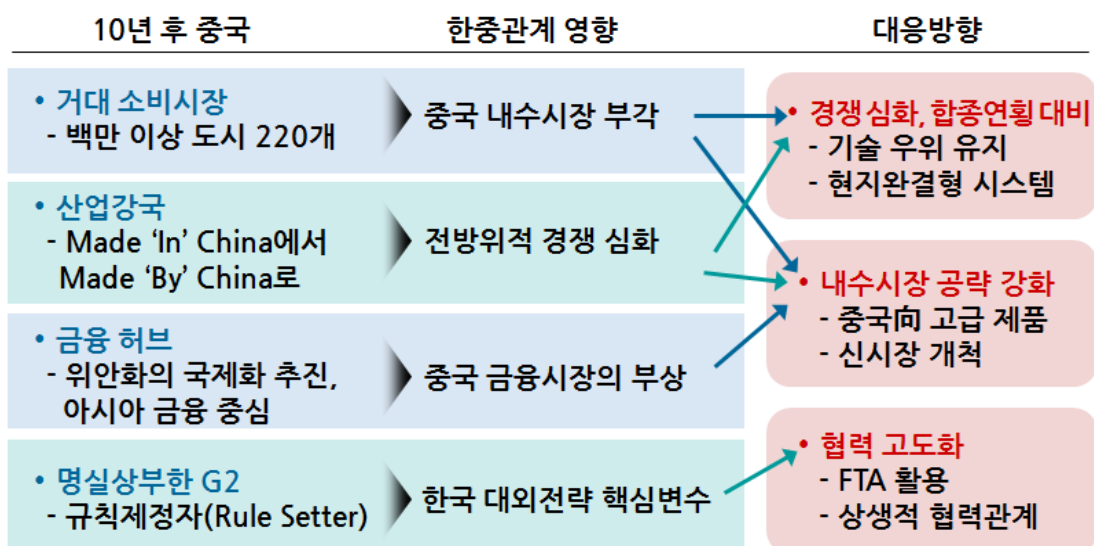
대응 ②: 중국向 제품 개발 강화 및 신시장 개척

중국 소비시장의 급성장은 한국기업에게 매출 확대의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여기서 거대 중국시장의 지역별, 계층별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전략을 구사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최근 중국과 글로벌 기업이 합작하여 내수시장을 개척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응 ③: 경제협력의 고도화

최근 중국 전자산업계가 대만에 스마트 TV 기술표준의 공동 제정 및 특허 공유를 제안한 바 있다. 이에 한국은 「중-대만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이후 고도화되어 가는 중국과 대만의 경제협력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한중 FTA를 활용하여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전자부품 등 중간재와 신사업 부문에서 긴밀하게 산업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I .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 韓中관계

수교 20주년, 급속히 가까워진 거대 이웃

- 1992년 8월 24일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지 20년 만에 양국 관계는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 전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발전
 - 2000년대부터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 되었고, 중국에게도 한국은 3위권 교역 상대국으로 부상
 - 한국의 對中 무역: 64억달러('92) → 2,206억달러('11), 36배
 - 중국의 對韓 무역: 50억달러('92) → 2,456억달러('11), 49배¹⁾
 - 정치적으로도 양국은 수교 당시 '선린우호관계'에서 2008년부터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발전²⁾
 - 양국관계는 정치 · 경제 교류에서 인적 · 문화적 교류로 확대 심화되어 양국 국민의 일상에도 영향을 주는 상황
 - 양국 인적 교류: 13만명('92) → 640만명('11)로 46배 증가
 - 최근 5년간 한국의 방송, 영화, 음악, 게임 등 문화 콘텐츠 분야의 대중 수출액이 300% 이상 증가

한류 확산과 의료관광산업의 발전

- ▷ 중국에서는 경제발전과 대중매체 발달로 인해 젊은 중국 여성을 중심으로 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미녀경제(美女經濟)'라는 신조어가 등장
 - 화장품, 성형 등 미녀경제 규모는 중국 GDP의 1.8% 수준
- ▷ 2011년 중국 여성들의 한국 의료관광비자 발급건수가 1,073건으로 전년 대비 386% 증가하는 등 화장품, 성형 분야로 한류의 영향이 확산
- ▷ 최근에는 한국과 중국이 합작해 중국 및 아시아 시장에 공동 진출하는 사례가 증가
 - 한중 합작 영화 <만추(晩秋)>의 수입액은 중국에서 역대 한국영화 중 최고 흥행수입인 6,840만위안(약 110억원)을 기록

¹⁾ 한중 간 무역통계 불일치는 홍콩을 경유해 양국으로 재수출한 규모의 차이 때문에 발생

²⁾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는 중국 대외관계 유형 중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 다음으로 고차원적인 것으로, 양자관계를 넘어서 지역적 · 세계적 사안뿐 아니라 중장기 사안도 논의하는 관계

중국의 변화에 따라 한중관계도 변화가 불가피

- 한중관계가 크게 발전한 것은 중국의 개혁·개방 추진과 한국의 발 빠른 대응이 어우러진 결과
 - 1992년 수교 당시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본격화하며 외자 유치 등 대외 개방을 더욱 확대
 - 한국기업은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과 방대한 시장 잠재력을 보고 지리적 근접성과 문화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중국시장에 진출
- 최근 중국은 중진국 함정(Middle income country trap)³⁾을 넘어 선진 경제대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도전에 착수
 -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30여년간 경제성장을 통해 대외적으로 G2로까지 발전했으나, 내부적으로는 성장 불균형의 부작용이 심화
 - 이에 따라 중국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경제구조 개선, 소비시장 육성, 혁신역량 및 산업경쟁력 강화 등 중장기 개혁 작업에 착수

중국의 주요 중장기 발전전략

- ▷ 등소평의 3단계(三步走) 발전전략
 - ① 원바오(溫飽: 1979~1999): 따뜻한 밥을 먹는다는 의미로 기초 의식주 해결 단계
 - ② 샤오캉(小康: 2000~2020): 1인당 GDP 5,000달러의 중진국 → 2011년 조기 달성
 - ③ 따통(大同: 2021~2050): 선진경제대국
- ▷ 2006~2020 '국가중장기과학기술발전계획요강'
 - 과학기술대국과 혁신을 기치로 신에너지, 국방기술, 신약 및 의료, IT 등에서 선진국 수준 진입
- ▷ 2011~2020 경제발전계획과 임무(국무원발전연구센터)
 - 1인당 국민소득이 중진국 수준으로 발전
- ▷ 12-5 계획(2011~2015): 소비 중심 경제구조 전환, 양적 성장에서 질적 발전 등

³⁾ 2006년 IMF에서 제시한 개념으로, 경제발전 초기에는 순조롭게 성장하다가 중진국 수준에 이르면 요소비용 상승, 빈부격차 심화 등으로 성장이 장기간 지체되거나 중진국에 머무는 현상

□ 중국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빠르게 발전한 한중 관계도 변화가 필요

- 중국이 내수 중심의 경제구조, 혁신과 녹색 발전 등 질적 성장으로 발전방식을 전환함에 따라 한중 경제관계도 보완관계에서 경쟁관계로 변화

· 중국의 저임금에 기반한 불균형 성장방식은 빈부격차 심화, 생산비용 상승, 노동분쟁 확산 등으로 한계에 봉착

- 또한 역사와 영해 문제에서 인식 차이가 드러나는 등 새로운 과제가 대두

시대적 변화에 따른 한중관계 2.0의 모색

□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양국 간 호혜적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한중관계를 경제 중심의 실리적 관계에서 전방위적 협력 심화 단계로 업그레이드할 필요

- 경제, 산업, 금융, 대외관계 영역에서 10년 후 중국의 미래를 전망하고, 한중관계의 나아갈 바와 대응방안을 도출

한중관계: 1.0 vs. 2.0

구분	한중관계 1.0	한중관계 2.0
기본 방향	- 경제 중심의 실리적 관계	- 전방위적 협력 심화 단계
경제	- 수직적 분업구조 · 보완적 산업구조 - 제조업 중심 단순한 형태 한국: 중간재 수출 중국: 완제품 재수출	- 수평적 경제관계 · 상대국 시장을 향한 경쟁 심화 - 경제협력의 확대 및 고도화 · 제조업 → 금융, 서비스, 신산업 · FTA로 인한 협력 제도화
사회 문화	- 경제관계에 수반된 양적 확대	- 질적 심화: 사회, 문화 이해 증진

Ⅱ. 10년 후 중국

경제, 산업, 금융, 대외관계의 4대 분야 혁신으로 선진경제대국 실현

□ 중국의 2020년 선진경제대국 진입전략은 소비 중심 경제구조로 전환, 산업 고도화, 효율적 자원배분을 위한 금융개혁, 대외 위상 제고 등

- [경제] 도시화와 임금 인상 등으로 민간소비가 활성화되어 투자와 무역 중심에서 소비 중심으로 경제구조가 전환
- [산업] 효율성이 낮은 산업구조에서 탈피하고, 혁신과 구조조정을 통해 산업강국으로 발돋움
- [금융]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금융시장을 개방하여 국유기업 민영화, 금융산업 육성 등 시장을 통한 자원배분을 강화
- [대외관계] 소프트파워 강화로 국제사회 규칙제정자로서의 위상이 대폭 상승

	중국의 변화	한국에 대한 영향
경제	• 도시화와 소득 재분배로 민간소비 촉진	• 중국 내수시장의 중요성 부각 - 向글로벌에서 向중국형 수출로 전환
산업	• 임가공업에서 탈피하여 제조업 고도화 추진	• 부품소재 등의 기존 사업과 신사업 모두 경쟁 심화
금융	• 위안화의 국제화 추진과 금융개혁 • 아시아의 금융중심지 역할	• 대중국 무역/투자 확대 • 중국 자본의 투자 증가
대외관계	• 소프트파워 확대 • 국제사회 규칙제정자로서의 위상 강화	• 한국의 대외전략에서 중국의 중요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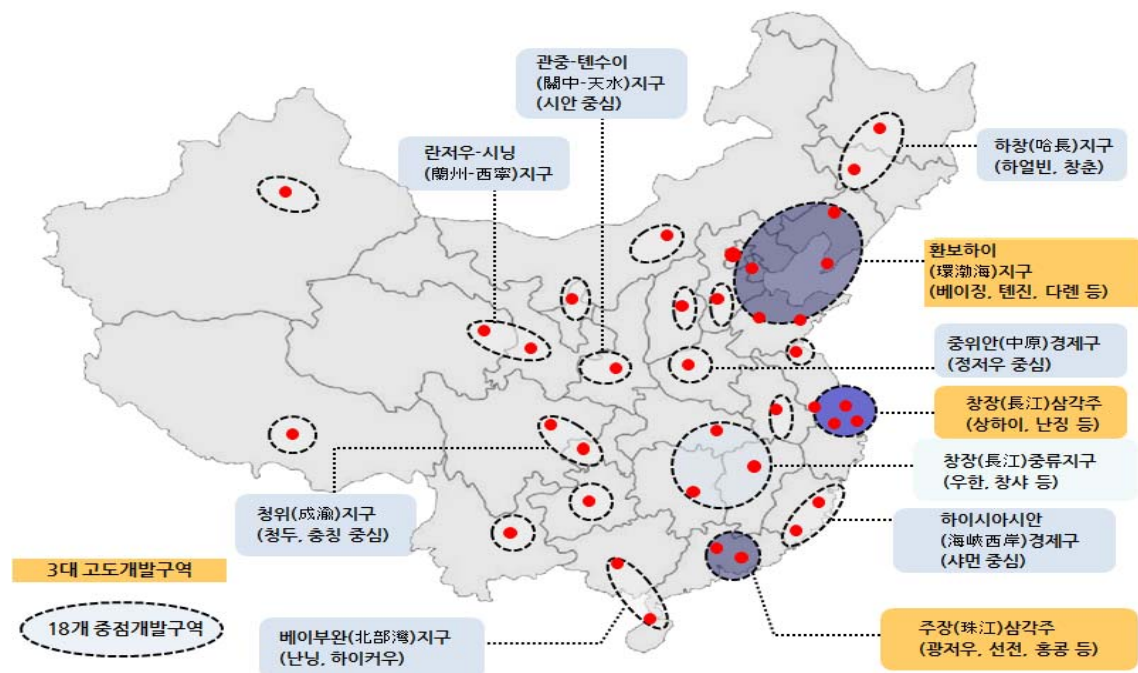
1. 거대 소비시장: 2020년 인구 백만 이상 도시 220개

도시화가 경제성장의 핵심동력

□ 중국은 도시화 정책으로 인해 2020년 인구 1,000만 이상 대도시가 8개 정도 되고, 전국에 중소도시가 다수 생겨날 전망

-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서 도시화를 추진⁴⁾
 - 2020년경에는 3개 고도개발구역(優化開發區域)과 18개 중점개발구역(重點開發區域)이 중국 도시화의 핵심지역이 될 전망
- 매년 1,600만명의 인구가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여 2020년에는 인구의 55%인 7억 5,000만명이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추정⁵⁾
- 이에 따라 도시 수는 현재의 860개에서 2020년 920개로 증가하고, 대도시와 인구 1백만 이상의 중형 도시는 220개 정도가 될 전망

중국 주요 도시화 계획(2020년)



자료: 國務院 (2010.12.21.) "關於印發全國主體功能區規劃的通知". 을 토대로 재구성

⁴⁾ 중국은 전국을 4대 기능구역(고도개발구역, 중점개발구역, 개발제한구역, 개발금지구역)과 3대 전략적 개발구역(도시, 농촌, 생태지구)으로 구별하고 종합적으로 개발을 추진

⁵⁾ 2011년 기준 중국의 도시화율은 51%로 한국 90%, 미국 81%, 일본 66% 등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소비구조의 변화: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

□ 도시화 진전, 사회보장제도 확산 등으로 소비가 크게 확대될 전망

- 구매력⁶⁾이 높은 대도시와 주변도시가 연결되면서 대형 소비권역을 형성
- 사회보장제도⁷⁾ 확충은 가계의 저축을 줄이고 소비 확대를 유도
- 2020년 중국 민간소비는 8.6조달러로 미국의 56.2% 수준으로 커질 전망(구매력평가(PPP) 기준으로는 9.4조달러)

주요국 소비시장(민간, 정부) 규모 추정

(단위: 조달러, 2011년 달러 기준)

구분	중국		일본		미국	
	민간	정부	민간	정부	민간	정부
2011년	2.4	1.0	3.5	1.2	10.7	2.5
2015년	4.5	1.6	3.9	1.2	12.6	2.6
2020년	8.6	2.8	4.5	1.4	15.3	3.0

자료: Global Insight

□ 도시화의 진전과 소득 증가로 필수품 위주의 소비행태인 '생계형 소비' 위주에서 선택적 소비 비중이 높은 '향유형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로 전환

- 전체 지출 중 식료품 구입 비중이 감소하는 대신 외식비 비중은 증가, 특히 식품 안전, 건강,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 증대로 러취족(樂活族)⁸⁾ 소비가 증가
- 주택, 교통, 통신, 의료, 여가 관련 지출은 증가
 - 도시화가 진전됨에 따라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도시 생활에 필요한 교통, 통신, 여가 및 문화생활 등에 대한 지출이 증가

⁶⁾ 도시의 소비성향(소비지출/처분가능소득)은 2009년 0.85로 농촌의 0.79를 상회

⁷⁾ 현재 공식적으로 의료, 양로 등 5대 사회보장보험이 있으나, 일부 지역만 혜택을 받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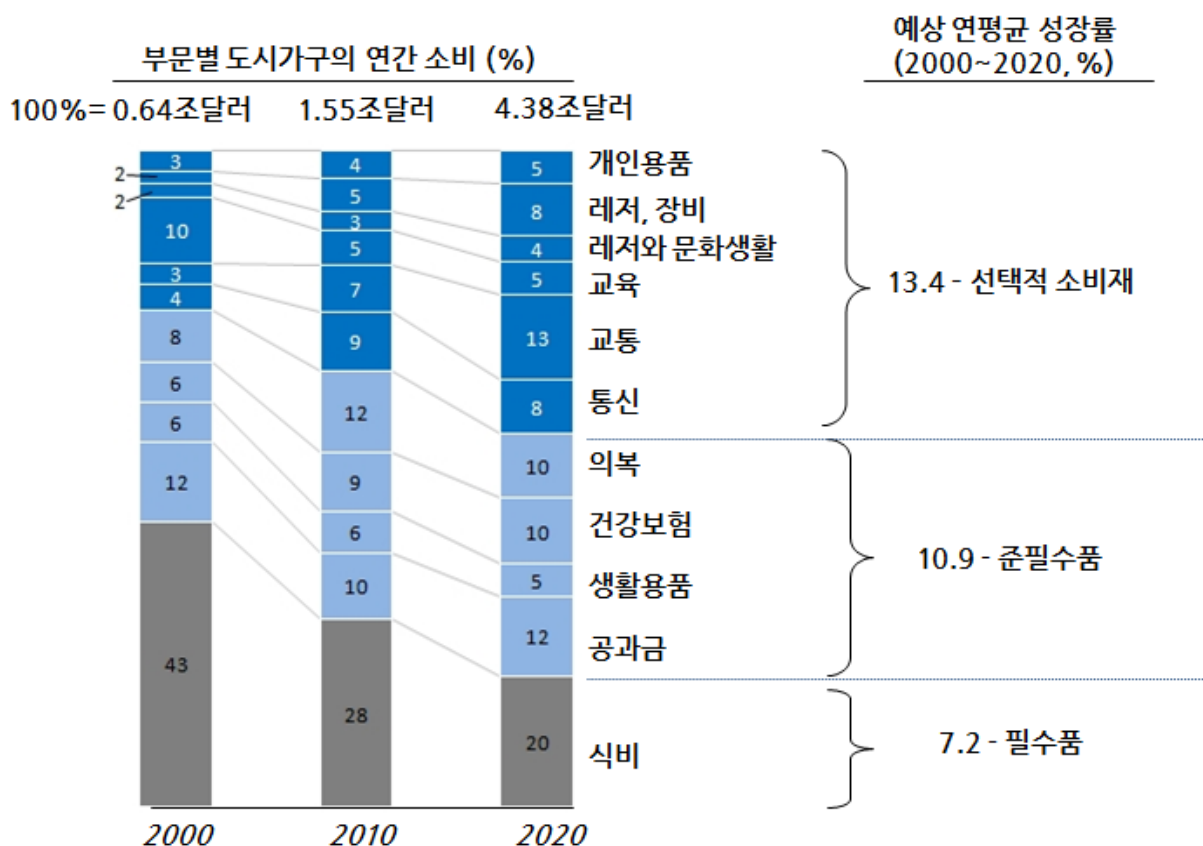
⁸⁾ LOHAS(Lifestyle Of Health And Sustainability)의 중국어 음차 표현

대중국 수출 구조 변화가 예상: 向글로벌에서 向중국형 수출로 전환

□ 중국이 소비 중심 경제구조로 이행함에 따라 대중국 교역품목과 구조에 일대 변화가 예상

- 제3국 수출을 위한 중간재 중심 수출구조가 중국 내수를 목표로 한 중간재 및 최종재로 재편될 전망 (向글로벌에서 向중국형 수출로)
- 또한 중국 서비스 산업이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서비스 품목의 수출 및 투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
- 식비 등 필수품에 대한 지출 비중이 줄어드는 대신 교통, 레저, 의료 등 여가 및 건강 관련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2020년 소비재별 성장 예측



자료: Atsmon, Y. & Magni, M. (2012. 3.). Meet the Chinese consumer of 2020. *McKinsey Quarter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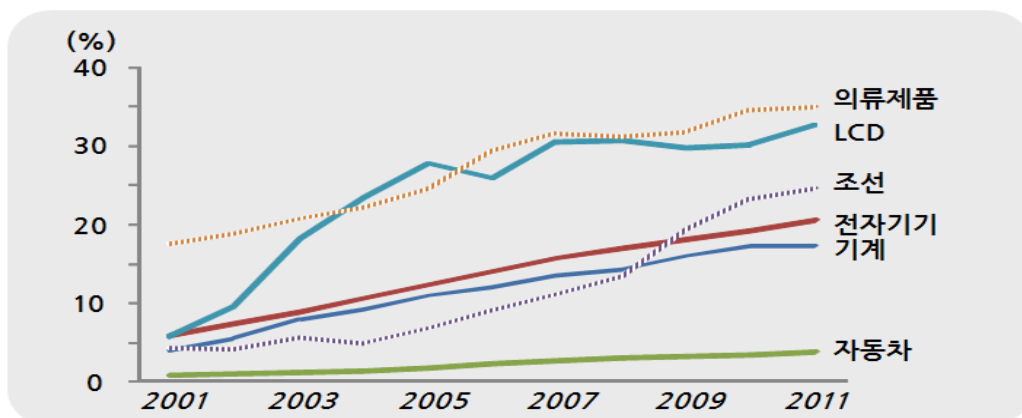
2. 산업강국: 'Made by China'의 부상

고도화되는 세계 최대 제조업 생산기지

□ 2020년 중국 제조업은 생산 및 수출에서 급속히 고도화되는 추세

- 중국 제조업은 다국적기업의 투자에 힘입어 생산은 2007년부터, 수출은 2009년부터 각각 미국과 독일을 제치고 세계 1위로 부상
- 현재 휴대폰, 컬러 TV, 조강 생산 등은 세계의 40~50%를 차지
- 중국의 2011년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10.7%인데, 의류(34.8%), LCD(32.6%), 조선(24.6%), 전자(20.6%)등의 비중이 높음

중국 주요 제품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추이



자료: UN Comtrade

□ 전통산업에서 부품 및 고기술 제품의 생산이 증가하고, 정부의 투자 확대로 미래 전략산업도 성장

- 석유화학, 철강 등 고기술 제품의 생산이 확대되고 정보통신, 자동차 등의 첨단부품 생산이 증가해 수입대체효과와 외화가득률 상승효과를 창출
- 부품 수입, 제품 조립 형태의 제조업에서 범용부품 생산 기능 추가
- 바이오 기술, 차세대 정보기술, 신소재 및 친환경 제조업도 부상

중국기업과 외자기업의 공존 및 경쟁 시대

□ 외자기업 중심의 가공기지에서 다국적기업과 중국기업이 공존하거나 나아가 중국기업이 주도하는 'Made by China'가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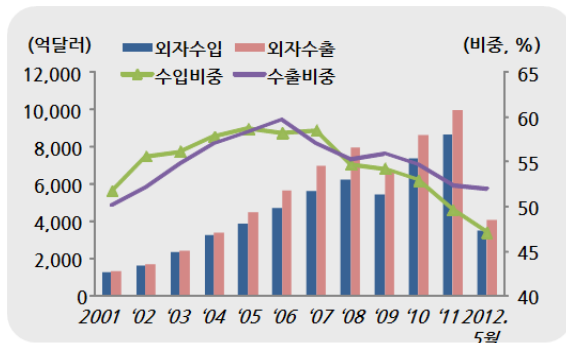
※ 'Made in China'는 다국적기업의 중국 내 생산을 포함하지만,
'Made by China'는 중국기업에 의한 생산을 의미

- 중국기업의 성장으로 외자기업의 수출 비중은 2006년 59.7%에서 계속 감소하여 2020년대에는 40% 중반으로 하락할 전망
- 전자·자동차 산업 등은 다국적기업 주도에서 다국적기업과 중국기업이 병존하는 구조로 전환
 - 일부 중국기업은 다국적기업과 대등한 기술 및 브랜드 파워 구축
 - 모바일, PC 등 전자 산업은 대만 및 한국 기업, 자동차는 구미 및 한국, 일본 기업 주도에서 중국과 공존하는 형태로 변화

□ 조선, 석유화학, 철강 등에서는 중국기업의 입지가 더욱 강화되어 외자기업을 능가

- 그 과정에서 범용제품에서 고급 부문으로 이전하려는 중국기업과 다국적기업 간의 기술경쟁이 격화

중국 수출입에서 외자기업의 비중



자료: 중국 상무부 DB

산업별 주도기업의 변화 전망

	다국적기업	다국적기업 + 중국기업	중국기업
전자	2010 → 2020		
자동차	2010 → 2020		
조선			2010 → 2020
석유화학		2010 → 2020	
기계		2010 → 2020	
철강			2010 → 2020

한중 제조업은 기존 사업과 신사업 모두 치열한 경쟁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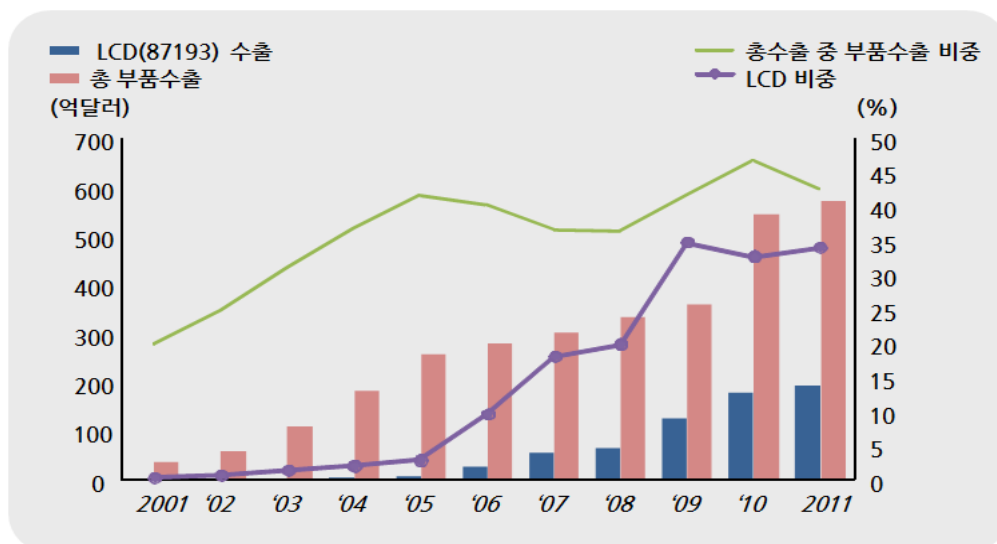
□ 한국과 중국은 이미 전방위적 경쟁관계에 돌입

- 중국은 미국 및 중국 시장의 가전제품, 통신기기, 자동차, 석유화학 등 전 분야에서 한국기업을 압박
- 조만간 중국은 LNG선, 고급전자제품, 철강의 기능강, 디스플레이, 휴대폰 분야 등 첨단 제품에서 한국과 경쟁할 전망⁹⁾

□ 중국의 부품산업 육성으로 한국의 부품산업에 타격 예상

- 한국의 대중 수출 중 전기전자, 기계 분야의 부품 수출은 감소 추세
· 단, 대중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LCD는 예외
- 중국이 LCD 산업을 육성하면 한국의 대중 부품 수출은 정체 혹은 감소

한국의 대중국 전기전자 및 기계 부품 수출 추이



자료: 무역협회, KOTIS. 자료를 토대로 작성

□ 신재생에너지 등 신사업 분야에서도 중국과 치열한 경쟁관계가 형성

- 중국의 7대 전략적 신흥산업과 한국의 신성장 동력 17개 품목이 중복

⁹⁾ 이문형 外 (2011). 『대중 산업경쟁력 확보 전략』 (제1권 총괄보고서). KI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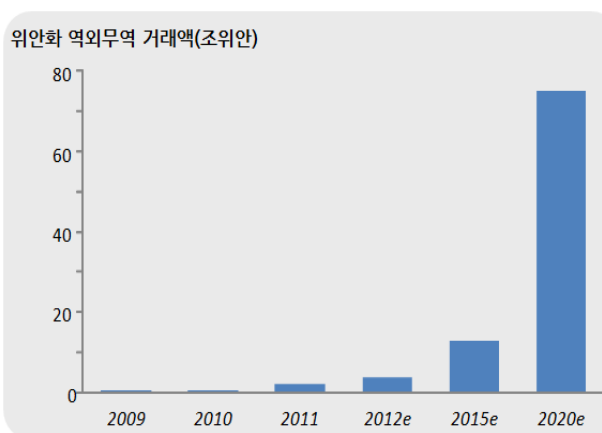
3. 금융 허브: 위안화의 국제화와 아시아 금융 중심

2020년 위안화가 달러, 유로에 이어 국제통화로 등장할 전망

□ 중국의 위안화는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 힘입어 2020년에는
準기축통화로 위상이 제고될 전망

- 세계 최대 무역국인 중국과의 무역결제에서 위안화를 보편적으로 사용
 - 특히 동아시아에서 한·중·일 3국과 아세안 간의 FTA 체결로
역내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위안화 사용이 일상화될 전망
- IMF 구성통화(SDR)에 포함된 위안화의 국제적 신뢰성이 제고되어,
각국 외환보유고에서 위안화 보유 비중이 크게 확대될 전망
- 위안화 표시 금융자산의 거래가 늘어나면서 위안화의 국제적 위상이
제고
 - 국제시장에서 달러-유로-위안화가 3대 통화를 구축할 전망¹⁰⁾

위안화 무역결제액 추이



중국의 통화스와프 체결국(2012년 현재)

국가	규모(억위안)
인도네시아	1,000
싱가포르	1,500
한국(확대)	3,600
홍콩(확대)	4,000
말레이시아(확대)	1,800
호주	2,000
총 18개국	13,900

자료: HSBC Hongkong (2011). RMB internationalization.; 인민은행화폐정책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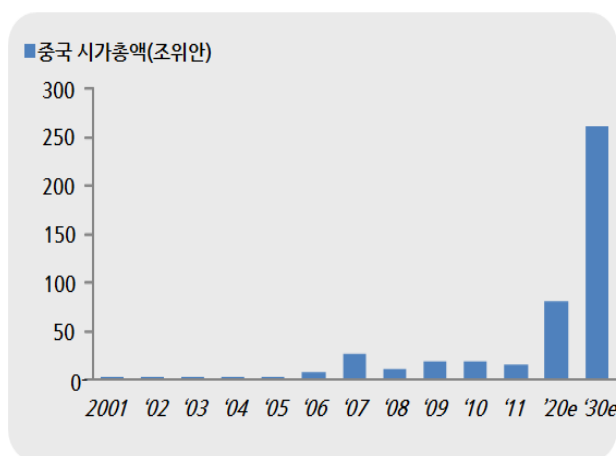
¹⁰⁾ HSBC (2011). The rise of the Renminbi. *HSBC Global Markets*. July.

중국 상하이가 뉴욕, 런던에 이어 세계 3대 금융중심지로 부상

□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본격화한 금융개혁에 따라 중국은 2020년에 아시아의 금융중심국으로 부상할 전망

- 자본시장 개혁으로 금융시장이 크게 성장하여 상하이 국제금융센터가 뉴욕, 런던에 이어 세계 3대 금융중심지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
 - 금융상품의 국제적인 출시, 거래, 가격결정, 결제의 중심인 상하이 국제금융센터는 2015년에 외환시장을 제외한 금융거래 규모가 1,000조 위안에 도달¹¹⁾
- 중국 내수시장을 염두에 두고 진출한 세계 500대 기업은 대부분 위안화로 공모하는 '상하이 국제판' 증시에 상장
 - 상하이 국제판(上海 國際版, International Board)은 역외기업(외국기업과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위안화로 거래하는 증권시장을 지칭
- 국유기업 민영화의 일환으로 중앙 및 지방 정부에서 관리하던 우량 국유기업의 상당수가 상하이 증시에 상장

중국 증시 성장 추이



2020년 금융시장 개방 계획(2012년)

구분/기간	주요 내용
1단계 (1~3년)	- 중국기업 해외직접투자(走出去) 장려
2단계 (3~5년)	- 위안화 상업 신용대출 확대 - 위안화 국제화 확산
3단계 (5~10년)	- 先자본유입 개방, 後자본유출 개방 - 부동산, 주식, 채권 順 개방 - 금리자유화

자료: 골드만삭스 (2010). EM Equity in Two Decades: A Changing Landscape (Global Economics Paper. No.204).; 인민은행조사통계국 (2012). "我國加快資本賬戶開放的條件基本成熟".

¹¹⁾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2012. 1. 30.). "十二五 时期上海国际金融中心建设规划".

위안화의 국제화 및 금융대국 중국의 부상은 새로운 기회

- 위안화의 국제화 확산은 한국에게 환리스크 감소 및 무역비용 절감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안겨줌
 - 한중 간의 무역 및 투자 관계를 감안할 때 위안화의 국제화로 대중국 수출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예상
 - 중국과 일본이 2012년 6월부터 위안화-엔화 직거래를 실시함에 따라, 일본기업은 환전수수료 인하 등 대중 수출 경쟁력 제고효과를 기대
 - 위안화의 국제화로 위안화가 평가절상되면 한국제품의 중국제품에 대한 가격경쟁력이 제고될 전망
 - 또한 한국의 외환보유고에서 위안화가 일정한 비중을 차지할 경우 환리스크 분산효과도 예상
- 한국 자본시장은 중국 금융시장 개방 및 금융산업 성장으로 인해 중국 자본유입 증가, 중국 금융산업 진출 확대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
 - 중국 자본시장의 성장으로 현지 진출 기업의 기업금융 수요가 확대되고 위안화 표시 상품에 대한 투자도 활성화될 전망
 - 특히, 한국기업이 상하이 국제판 증시에 상장할 경우 한국 금융기관의 역할이 확대
 - 한중 간 금융거래가 빠르게 증가할 것이며, 특히 중국자본의 한국 자본시장 진출이 활발해질 전망
 - 단, 국내 자본시장에서 중국자본의 비율이 높아지면 위안화 자본의 대규모 유출입에 따른 증시 변동성이 심화될 위험성

4. 명실상부한 G2: 국제사회의 '규칙제정자(Rule-set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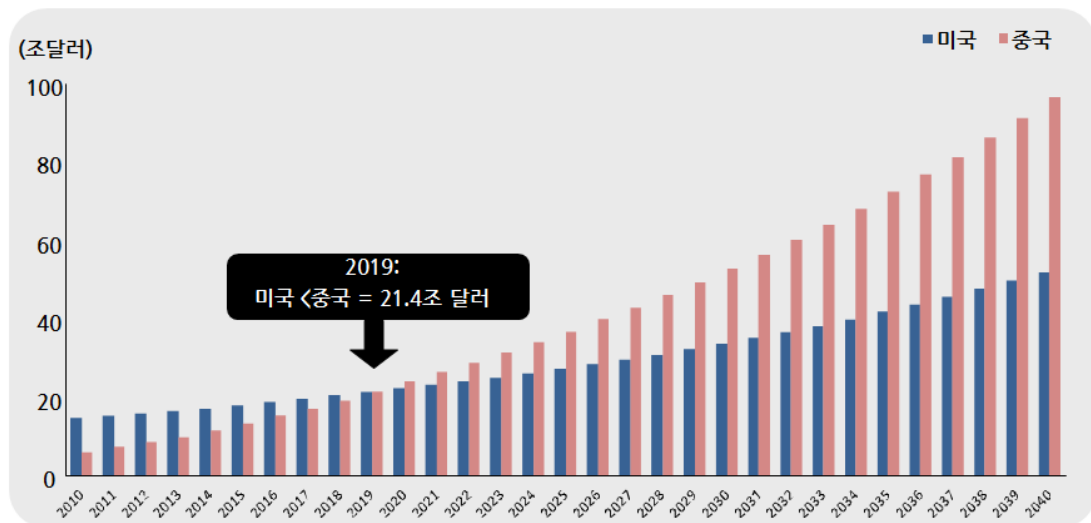
국제적 평판이 미국을 추월

□ 향후 10년을 전후해 중국은 경제규모에서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제적 평판(reputation)¹²⁾에서는 이미 미국을 넘어선 상황

- 중국은 2009년 교역규모가 독일을 제치고 세계 2위로 부상했고, 2010년에는 GDP 규모가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로 부상

• 중국 GDP의 미국 추월 예상시점이 2027년(골드만 삭스), 2020~2025년(JP 모건), 2020년(도이체뱅크), 2019년(크레디트 스위스), 2016년(IMF)으로 점차 단축¹³⁾

미국과 중국 GDP 전망 추이



자료: Global Insight

- 중국은 경제성장 전망에 힘입어 최근 국제적 평판에서도 미국을 추월한 상황

• 오바마 집권 이후 미국이 계속 우위를 유지하다가 2012년 역전¹⁴⁾

¹²⁾ 국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긍정적인지 또는 부정적인지에 대한 평가

¹³⁾ IMF 발표시점이 2011년으로 가장 이르고, 나머지는 모두 2010년 전후로 예측

¹⁴⁾ 정원철(2012). "BBC- 동아시아연구원(EAI) 공동조사" (EAI여론브리핑 제115호). 동아시아연구원.

국제사회 규칙제정자로서의 위상을 강화

- 중국은 단순한 '규칙수용자(Rule-taker)'에서 벗어나 세계 '규칙제정자'로서의 역할 증진을 위해 국제 경제기구 내에서 자국 지분을 확대
 - 2010년 4월 세계은행이 중국의 의결권을 2.77%에서 4.42%로 크게 늘려, 중국은 미국, 일본에 이어 3번째로 영향력이 큰 국가로 부상
 - 2010년 11월 IMF도 중국의 쿼터를 4.0%에서 6.4%로 확대한 결과 중국은 기존 6위에서 미국, 일본 다음인 3위로 도약
- 중국은 'G20 체제'를 주무대로 선진과 신흥국 간 '가교 역할'을 함으로써 세계 규칙제정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확대해나갈 전망
 - 중국은 'G20 체제'를 '서구 집종의 세계경제 파워 구조를 조정'할 수 있는 미래 글로벌 거버넌스의 핵심으로 인식¹⁵⁾
 - '개발도상국'의 대변자를 자임하며, 국제금융체계 개혁, 새로운 기축통화 도입, 선진국과 개도국 간 불균형 해소에 대한 발언권을 강화할 전망¹⁶⁾

국제사회의 규칙제정자, 중국

- ▷ 미중 전략경제대화(S&ED)의 정례화 및 논의 범위 확대
 - 미국과 중국은 2009년부터 경제, 정치, 안보 분야를 논의할 고위급 회담인 미중 전략 및 경제대화를 정례화
 - 양국을 벗어나 글로벌 이슈를 공동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범위가 확대
- ▷ 국제 이슈에서 중국은 미국과 입장 차이가 있으며, 별도 조직을 운영하기도 함
 - 유엔의 대이란 제재 등 국제정치 이슈에서 중국 등의 반대로 합의에 난항
 - 중국은 미국 등 서방국가가 배제된 최초의 국제조직인 상하이협력기구(SCO)를 성공적으로 운영¹⁷⁾

¹⁵⁾ Jin, Canrong & Liu, Shiqiang (2010.11.8.). The G20's role irreplaceable. *China Daily*.

¹⁶⁾ "胡錦濤在二十國集團領導人第七次峰會上講話" (2012. 6. 19.). 『新華網』.

¹⁷⁾ 상하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는 중국,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4개국이 설립한 국제기구로 2001년 출범하여 역내 정치, 경제, 안보 분야의 협력을 목표로 운영

한국 대외전략의 핵심 변수로 부상

- 중국의 국제위상 강화와 그에 따른 G2 간 경쟁 심화로 인해 한국은 더욱 정교한 대외전략을 수립할 필요
 -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에 있어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
 - 미국은 ASEAN+3 등 자국이 배제된 동아시아 지역주의보다 APEC, TPP 등 자국 중심의 환태평양 연대를 선호
 - 중국은 한국이 미국과 대등한 수준으로 한중 관계 격상을 희망할 것으로 예상
 - 중국은 EU나 NAFTA와 같은 지역경제공동체가 동아시아에도 필요하다는 입장
- 한국 대외전략의 핵심 과제는 미국과 중국의 이해를 동시에 고려하는 '합리적 균형점' 도출
 - 안보 위협이 상존하는 한반도 정세를 감안하면 한미동맹은 미래에도 중요
 - 따라서 한미동맹과 한중협력을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질 전망
 - 선진국과 신흥국 간 '가교역할'을 통해 국제위상을 제고하려는 중국의 대외전략을 한국도 일정 부분 공유
 - 향후 국제금융기구 개혁 및 개발 의제, 에너지 및 기후변화 등의 글로벌 의제에 있어 한중 간 협력 공간이 확대될 전망

Ⅲ. 시사점 및 대응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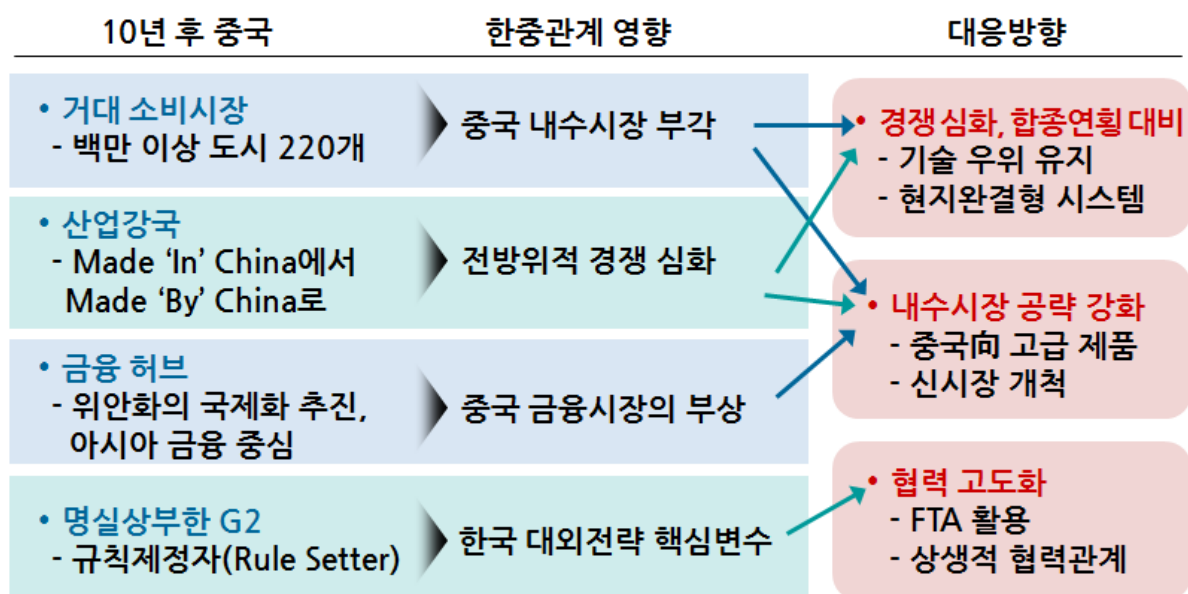
중국의 대변혁은 한국기업에게 커다란 영향

□ 중국의 도전은 국내외적 난관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예상

- 불균형 성장으로 인한 사회갈등 심화와 불안정한 대미관계가 중국의 최대 난관이나 전체적으로 중국의 도전은 상당한 성과를 거둘 전망

□ 중국의 시장, 산업, 금융 등의 대변화로 인해 한국기업에게는 기회와 위기 요인이 동시에 발생

- 중국의 소비시장과 금융시장의 성장은 한국기업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
- 이와 달리 중국이 산업강국으로 부상하는 것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한편, 전반적으로는 중국 및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예고
- 따라서 기회를 최대화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



중국시장을 둘러싼 경쟁 심화와 합종연횡에 대비

□ 중국시장 선점을 위한 대만, 일본 등 경쟁국의 행보가 가속화

- 일본기업은 독자적 중국 진출 외에 대만과 협력하여 진출하는 경우도 상당수
 - 일본 편의점 체인 기업인 세븐일레븐은 대만의 통이(統一)그룹과 합작 진출(세븐일레븐은 통이에게 상하이 지역 운영권 부여)
- 대만의 경우 중국 및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일본기업이나 중국기업과 협력을 확대하는 데 매우 적극적

대만의 '황금 삼각형 전략'

- ▷ 대만의 홍하이(鴻海) 그룹이 일본 샤프의 지분을 인수하며 대만기업이 주목받기 시작
- ▷ 대만은 일찍이 중국의 시장, 대만의 대중국 마케팅 능력과 제조기술, 일본과 미국의 첨단기술을 결합하는 '황금 삼각형 전략'을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



□ 한국기업은 기술 우위 유지와 함께 '현지완결형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국 정부 및 기업과 파트너십 강화에 주력

- 부품소재 등 핵심제품에 대한 지속적 투자로 경쟁기업 대비 기술 우위를 지속할 필요
- 제품 기획부터 판매, 핵심인력을 포함한 '현지완결형 경영시스템'을 구축해 중국시장 진출을 가속화
- 중국정부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전략방향을 주시하고, 중국 정부 및 기업과 파트너십을 강화해 사업 진출 기회를 확충

중국向 고급 제품의 개발 및 신시장 개척

□ 중국 소비시장 발달은 한국기업에게 새로운 수출 판로 개척의 기회

- 도시화에 따른 삶의 질 향상 욕구를 충족하는 중국 맞춤형 제품 개발
 - 중국정부의 교통 인프라 강화와 문화산업 육성 등으로 여가산업의 높은 성장이 예상
 - 사회보장 확대, 가짜 식품 범람 등으로 친환경, 건강 및 안전 제품에 대한 관심이 고조
- 지역별로 도시화 정도가 차이가 있으므로 기존 대도시와 개발 중이거나 개발 예정인 도시에 따라 차별적 접근전략이 필요
 - 최근 랴오닝(遼寧) 성 다롄(大連) 시가 5번째 국가급 개발특구로 지정될 것이 유력해짐에 따라 지난 10여년 이상 진행된 중서부 개발에 이어 동북 진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

□ 최근 중국기업은 외국기업과 협력하여 자국시장에 활발히 공동 진출

- 중국기업은 유명 외국기업과 협력하여 자국시장을 공략하는 사업 모델을 선호
- 한국기업도 사안별로 합작 진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국 푸싱(復星)과 프랑스 클럽메드(Club Med)의 합작

- ▷ 세계 최대 휴양리조트 기업인 클럽메드는 2011년 중국 푸싱 인터내셔널에 지분 10%를 인계하며 5년 내 중국을 제2의 시장으로 만들려는 계획을 추진
- ▷ 2011년 11월 하얼빈 인근 야부리에 중국 최초의 클럽메드 리조트인 '야부리 스키리조트'를 개장, 일주일 만에 2달 치 예약이 끝나는 등 성공적으로 론칭

한중 경제협력의 고도화


□ 한중 FTA를 활용하여 중국과 新산업 분야에서 공동 표준 제정, 금융협력 등을 추진

- 한중 FTA 체결을 기점으로 대중국 무역비용 절감효과가 큰 원화와 위안화의 직거래 등 금융협력을 강화할 필요
- 특히 신재생에너지, 3D TV나 스마트 그리드 산업과 같이 발전 중인 산업 분야에서는 양국이 국제 표준화를 위한 협력을 추진
 - 2010년 「중-대만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체결 이후 중국과 대만의 첨단산업 분야 협력이 강화

中-대만 스마트 TV와 바이오 산업 협력 강화

- ▷ 2012년 6월 중국 비디오산업협회(CVIA) 부회장은 대만을 방문, 스마트 TV 기술 표준 제정과 특허공유를 제안
 - 중국의 단말기 제조, 플랫폼 운영, 콘텐츠 서비스 능력과 대만의 패널 제조, 반도체 개발의 강점을 결합
- ▷ 중국과 대만은 「해협양안의약위생협력협정」을 체결하여 2012년 6월에 발효
 - 동 협정으로 중국과 대만은 신약과 의료기자재 개발 시 동일한 임상시험 기준 채택에 합의

□ 과거 20년간 한국과 중국이 성공적인 경제협력관계를 구축해왔듯이, 앞으로도 한중 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분업구조를 모색

- 수교 이후 한중 양국기업의 성장동인은 중국의 인력과 한국의 기술이 결합한 호혜적 분업관계
- 미래에도 중국의 풍부한 우수인력 및 자본과 한국의 기술 및 경험 등을 결합하여 한 차원 높은 협력관계를 추구 

【 지표로 보는 경제 Trend 】

< 1일 지표 >

		7. 17	7. 18	7. 19	7. 20	7. 23
환율	원/달러(종가기준)	1,143.60	1,142.60	1,139.10	1,141.20	1,146.60
	엔/달러(뉴욕시장)	79.815	79.150	78.770	78.725	78.460
	달러/유로(뉴욕시장)	1.22700	1.22870	1.22780	1.22760	1.21230
금리	회사채(3년AA-, %)	3.51	3.48	3.50	3.47	3.41
	국고채(3년, %)	2.92	2.89	2.91	2.88	2.82
	CD (91일, %)	3.24	3.23	3.22	3.21	3.20
	LIBOR (3개월, %)	0.45510	0.45510	0.45310	0.45210	0.11300
국제 원자재 가격	두바이(S, \$/배럴)	100.86	100.89	102.71	103.39	99.62
	WTI(S, \$/배럴)	89.10	89.84	92.53	91.42	88.03
	CRB 현물가격지수	480.59	482.77	484.27	484.70	..
주가지수(KOSPI, 증가)		1,821.96	1,794.91	1,822.96	1,822.93	1,789.44
한국 5년만기 CDS 프리미엄		121	122	120	122	131

< 월별 지표 >

	2010년	2011년	2012.2월	2012.3월	2012.4월	2012.5월	2012.6월
제조업생산 증가율 ¹⁾	16.8	7.0	15.0	0.3	0.0	2.7	..
평균가동률	80.9	79.9	81.0	78.1	79.3	79.3	..
서비스업생산 증가율	3.9	3.3	5.6	1.6	1.0	2.2	..
실업률	3.7	3.4	4.2	3.7	3.5	3.1	3.2
실업자(만명)	92.0	85.5	104.2	94.5	89.5	80.7	82.2
총취업자 수(만명)	2,382.9	2,424.4	2,378.3	2,426.5	2,475.8	2,513.3	2,511.7
소비자물가 상승률	3.0	4.0	3.1	2.6	2.5	2.5	2.2
생산자물가 상승률	3.8	6.1	3.5	2.8	2.4	1.9	0.8
생활물가 상승률	3.4	4.4	3.1	2.6	2.5	2.2	1.8
수출(억달러, FOB) ²⁾	4,663.8	5,552.1	463.3	473.4	461.2	469.6	472.5
(증감률)	(28.3)	(19.0)	(20.4)	(-1.5)	(-5.0)	(-0.8)	(1.1)
수입(억달러, CIF)	4,252.1	5,244.1	449.9	450.2	440.3	447.4	423.4
(증감률)	(31.6)	(23.3)	(23.6)	(-1.2)	(-0.4)	(-1.2)	(-5.5)
외환보유액(억달러)	2,915.7	3,064.0	3,158.0	3,159.5	3,168.4	3,108.7	3,123.8

1) 통계청 (2012. 6. 29.) “2012년 5월 산업활동동향” 에 의거하여 작성

2) 관세청 (2012. 7. 16.) “2012년 6월 및 상반기 수출입 동향(확정치)” 에 의거하여 작성

< 분기 지표 >

	2010년	2011년	2011년 2분기	2011년 3분기	2011년 4분기	2012년 1분기	2012년 2분기
GDP 성장률 ¹⁾	6.3	3.6	3.5	3.6	3.3	2.8	..
민간소비	4.4	2.3	3.0	2.1	1.1	1.6	..
설비투자	25.7	3.7	7.7	1.2	-3.3	8.6	..
건설투자	-3.7	-5.0	-4.2	-4.0	-2.1	1.5	..
SERI 소비자태도지수 (연간은 연말 기준)	51.8	45.4	47.2	47.5	45.4	44.2	46.6
SERI 경제행복도지수 ²⁾ (연간은 연말 기준)	0.658	..	0.689	0.693
개인금융자산(조원) ³⁾	2,187.9	2,303.4	2,275.7	2,234.4	2,303.4	2,365.3	..
개인금융부채(조원)	1,016.6	1,103.5	1,055.0	1,074.0	1,103.5	1,106.9	..
채정수지(조원)	16.7	18.6	-2.3	16.8	18.6	-11.3	..
경상수지(억달러) ⁴⁾	293.9	265.1	54.9	69.0	115.1	26.3	..
총대외지불부담(억달러) ⁵⁾	3,594	3,984	3,993	3,956	3,984	4,114	..

1) GDP 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2) 2010년 4/4분기부터 소득분배 부문 하위지수 산정법 개정으로 과거 자료와 상이

3) 개인금융자산 및 부채는 자금순환계정 기준

4) IMF 국제수지통계매뉴얼(BPM5) 기준

5) IMF, World Bank 등 9개 국제기구가 마련한 새로운 편제기준, 분기별 발표

< 주요국 통계 >

(전년동기 대비, %)

		2010년	2011년	2011년 2분기	2011년 3분기	2011년 4분기	2012년 1분기	2012년 2분기
미국	GDP 성장률 ¹⁾	3.0	1.7	1.3	1.8	3.0	2.2	..
	실업률 ²⁾	9.6	9.0	9.1	9.0	8.5	8.2	8.2
	소비자물가 ²⁾	1.6	3.2	3.6	3.9	3.0	2.7	..
일본	GDP 성장률 ¹⁾	4.4	-0.7	-1.2	7.1	-0.7	4.1	..
	실업률 ²⁾	5.1	4.6	4.6	4.1	4.5	4.5	..
	소비자물가 ²⁾	-0.7	-0.3	-0.4	0.0	-0.2	0.5	..
유로 지역	GDP 성장률 ¹⁾	1.9	1.5	0.2	0.1	-0.3	0.0	..
	실업률 ²⁾	10.1	10.2	10.0	10.3	10.6	11.0	..
	소비자물가 ²⁾	1.6	2.7	2.7	3.0	2.7	2.7	2.4
중국	GDP 성장률 ¹⁾	10.4	9.2	9.5	9.1	8.9	8.1	7.6
	실업률 ²⁾	4.1	4.1	4.1	4.1	4.1	4.1	..
	소비자물가 ²⁾	3.3	5.4	6.4	6.1	4.1	3.6	2.2

1) 미국, 일본, 유로지역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연율, 중국 GDP 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2) 실업률 및 소비자물가의 경우 분기 말 기준